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산상수훈(1866)〉, Gustave Doré (1832-1883)

[제1독서] 스바니야 2,3; 3,12-13

[화답송] 시편 146(145), 6ㄷ-7.8-9ㄱ.9ㄴㄷ-10ㄱㄴ
(◎ 마태 5,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1코린 1,26-3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음] 마태 5,1-12 ㄴ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 봉헌성가: [41] 형제에게 베푸는 것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92] 지존하신 성체
[186] 구원을 위한 희생
- 파견성가: [37] 행복한 사람들

마태 5:1-12ㄴ | MT 5:1-12A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³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⁵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⁶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⁷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⁸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⁹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¹⁰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¹¹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¹²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the mountain,
 and after he had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ey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land.
 Blessed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clean of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
 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they insult you and persecute you
 and utter every kind of evil against you falsely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세속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들,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채워 주시면,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참된 행복이 마음속에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주는 주체는 하느님이십니다. 산상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산상 설교의 참된 행복은 현실의 역동성 안에 드러나는 것이지, 미래에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조건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지상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의 영을 지니는 사람이 하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밑바닥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위로’를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의로움과 자비로움, 깨끗한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의 삶 속에 불멸의 평화가 가득 찹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어려움이나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불사불멸의 즐거움, 영원한 상급의 전조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진복팔단’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Congratulations Fr. Paik for on your 25th Anniversary of priesthood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 19)



*We honor you
for being a dedicated and loving shepherd of God's flock.
God bless you on this milestone of devotion and service.*

PRAYER FOR FATHER PAIK

O Jesus, our great High Priest, Hear my humble prayers on behalf of your priest, Father Paik on his 25th anniversary of his priesthood.

Give him deep faith, a bright and firm hope and a burning love which will ever increase in the course of his priestly life.

In his loneliness, comfort him. In his sorrows, strengthen him. In his frustrations, point out to him that it is through suffering that the soul is purified. Show him that he is needed by the Church, he is needed by souls, and he is needed for the work of redemption.

O loving Mother Mary, Mother of Priests, take to your heart your son who is close to you because of his priestly ordination, and because of the power which he has received to carry on the work of Christ in a world which needs him so much.

Be his comfort, be his joy, be his strength, and especially help him to live and to defend the ideals of consecrated celibacy.

Amen.



Pope Francis: The Christian life is about showing up

To live a Christian life, we can't run away or hide from God's will, Pope Francis said on Jan 24, Tuesday. Rather, we must continuously show up – speaking to God in prayer and striving to do his will.

“The Christian life is this: Here I am, here I am, I continue to do the will of the Lord,” the Pope said in his homily at Santa Marta Jan. 24.

His homily reflected on the day's first reading from Hebrews, where it says that Christ came into the world not for burnt offerings or sacrifices, but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All of Salvation history is a story of people saying ‘here I am’ to God, he pointed out.

“And one after another...It's beautiful to read Scripture, the Bible, looking for the answers of people to the Lord, how they answered, and to find those is so beautiful. 'Here I am, I come to do your will.'”

And we don't have to worry, because no matter what he is asking us to do, “The Lord is always in dialogue with those whom he invites” to do his work, Francis explained.

“He has lots of patience, lots of patience.”

Today's liturgy invites us to reflect and ask ourselves: 'How am I doing at responding to the Lord's call?' the Pope continued.

He invited attendees at the Mass to reflect: Do I hide like Adam in the Garden of Eden, not responding? Do I run away like Jonah, or look the other way like the Levite and the priest when they saw the man wounded and beaten by strangers?

Sometimes, in the course of our lives, we may get angry with God, Francis noted. But this can also be a way to pray: as our Father, “he likes to discuss with us,” the Pope said. Even if you are angry, still pray – tell God how you feel.

This is just another way of responding to God, of saying “here I am,” he said.

The alternative, Pope Francis said, is to hide, run away, pretend, or look the other way.

“Each of us can answer: How is my 'Here I am' to the Lord, doing his will in my life? How is it? May the Holy Spirit give us the grace to find the answer.”

ANNOUNCEMENT

1. Students Confirmation Class

- **Who** : 7th Grade & Up
(Baptized & Had First Communion)
- **When** : First Day of Confirmation Class
(Wed., Mar. 1, 7:45pm-9pm)
- **Registration Period** :
Sundays, Jan. 29 - Feb. 26
at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uilding)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2. 2017 WorkCamp

- **When** : June 24-June 30, 2017
- **Where** : Massaponax, VA
- **Who** : 9th to 12th graders
- **Register** : Jan 8-Feb 5 at Cafeteria
Application forms with a **\$50 fee**
is requir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 Please contact **Jin H. Lim** (703)261-5710
or **Yoonhee Kim** (703)282-4733
for more information.

3. Homeless Shelter Donation Period

Extended until **February 24, 2017**.
Thanks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We still need your generous support to
make this event successful!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25년이 되었네요...”



성 정 바오로 성당의 8대 주임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가 2017년 1월 28일로 사제수품 25주년을 맞는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할 뿐 25주년이라 해서 뭐 그리 특별하겠냐며 소박하게 웃는 백신부는 앞으로의 바람도 거창하지 않다.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25년 사제 사목 중 첫 교포 사목지로 온 이곳에서 은경축을 맞은 백인현 신부를 만나 신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조용하면서 용기있는 안드레아처럼

“사제로 산지 벌써 25주년을 맞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992년 1월 28일, 25년 전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 안드레아를 닮고 싶었던, 그의 용기와 열정을 닮고 싶었던 젊은이들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고 어부였던 안드레아 이름에는 ‘용기있는, 사내다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는 이름처럼 용기있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도입니다.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하고 선언하자, 안드레아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물으셨을 때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문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아는 감격에 넘쳐 그의 형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요한 1,35-41)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형에게 전하고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의 전교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안드레아의 복음 선포 바탕에는 호기심과 섬세함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도 안드레아였어요.(요한 6,8-9)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밝히고

알리는 모습, 사람들이 미처 못 본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분의 성격이 전 참으로 좋습니다. 대장처럼 앞장서서 소리치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 ...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물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는 말씀이 제 서품 성구입니다. 그때는 좋은 사제, 사람을 낚는 신부가 되고 싶었던 바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다음 성서 말씀(20절) 이 더 와 닿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거나 낚으려는 지도자의 모습보다 스스로 먼저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사제다운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좇다 보면 아무래도 주님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나를 옹아매고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을 버려야겠다... 제 안의 욕심과 인간적인 집착 등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사는 것이 제가 매일 해야 할 숙제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서품 성구를 선택한다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부분도 꼭 넣고 싶습니다.



1992년 1월 28일 사제 서품 후 첫 미사를 드린 후 동생 베드로 신부와 누님 엘리사벳 수녀와 함께

신앙,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돌아보면 우리 집에 큰 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은총도 주신 것 같습니다. 큰 형님이 38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형님 장례를 치르고 열흘 만에 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죠. 그 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살아줘서 고맙다.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는 줄 알았다”고요.



9남매(5남 4녀)의 여섯째인 백신부. 어머니 이상옥(아가다) 여사와 누님 엘리사벳 수녀와 동생 글라라 수녀, 동생 베드로 신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든든한 벗이다.

동생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고 보좌신부로 부임하기 전 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어머님은 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살아서 고맙다...” 어머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 안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시면서...

동생은 그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쓰게 되었지만 그 좌절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 주고 웃어 주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는 어머님처럼 동생도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 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농구, 탁구, 모노 스키 등을 하며 장애우들을 위해 열심히 사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묵상합니다. 장애인 사제가 되었기에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를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신앙’을 배웁니다.

‘착한 목자가 되려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드는 생각, ‘아직 멀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길을 나섰으니까 그 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를 때는 뭐든 자신이 있었는데 뭔가 알아갈 즈음이 되니까 더 어려운 거 같아요.(웃음)

신학생 때 배운 단어가 기억납니다. 라틴어로 사제를 ‘Sacerdos’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거룩함을 주다’, ‘거룩한 것을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사제는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존재인데 제가 사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몇 년 전에 ‘굿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상에 남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주인공은 “좋은 의사가 되려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저도 ‘착한 목자가 되려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요한회 소식

요한회(회장 배석범 알베르토)는 지난 22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새 임원진 소개 및 인사에 이어 2017년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요한회는 2월에 노인 아파트를 방문할 계획이다.

성령기도회



2017년 성령기도회 동중부 첫 임원 모임이 지난 22일(일) 성당에서 열렸다. 리치몬드 한인 성당의 이명상(아우구스티노) 지도 신부를 비롯하여 볼티모어 7명, 워싱턴 온리 8명, 성 정 바오로 성당 7명 등 총 23명이 모여 2016년 활동보고 및 2017년 계획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3월의 기초 성령 묵상회와 5월에 있을 9차 성령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와 점검 시간을 갖고 성령쇄신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성령대회를 준비하자고 한마음으로 응답했다.



교육부 세미나

교육부에서 주최한 생활 세미나가 지난 22일 (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텃밭 가꾸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원웅식 요셉(농학박사) 강사는 '질 좋은 흙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고추 모종 실습에 참여한 25명의 신자들에게 무료로 고추 씨앗도 제공했다.



우리 공동의 집과 한 가족인 인류를 보호합시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루카 10,29-37 참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강도를 만나 초조증이 되어 우연히 내 앞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결연히 실행하는 착한 이웃이 됩시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마르 3,35)라고 하신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생태주의자들의 수호자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아 쓰신 최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찬미받으소서」, 49항)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는, 현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인류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것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지구에 대한 성찰로 접근해야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권리나 다른 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제한하고 수탈함으로써 내게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는 동안 우리의 후손들도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봅시다. …

나의 나눔과 헌신은 결국 내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해원 조주일에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녀답게 나눔과 가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2017년 1월 29일 해원 조주일에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운희** 주교

〈해원 조주일 담화문 중〉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 일시: 1월 29일(일) 8시, 10시 미사 중
(영적선물과 꽃다발 증정, 축하)
- 미사 후 친교실에서 대친교가 있습니다.
- 백인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은경축)을 한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 단체 홍보의 날

- 1월 29일 (일) 8시 미사, 10시 미사 후
- 단체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자 영성체

- 일시: 2월 3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2월 5일(일) 오전 11:30(B-1,2)

4 청소년 사도임원회

- 일시: 2월 5일(일) 오후 1시(B-3,4)

5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2월 5일(일) 오후 1시(B-1)

6 제76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3월 5일(일)
- 등록: 매 주일 친교실 선교 테이블(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유재운 요셉 (703)628-9314

7 파티마 세계 사도직 임원 회의

- 일시: 1월 29일(일) 오후 12시
- 장소: 친교실 A-4

8 성가대 봉사자 모집

- 8시, 10시, 장례미사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사무실

9 학생 건진 성사반 등록

- 접수기간: 1월 29일(일) - 2월 26일(일)
- 접수처: 하상관 로비
- 첫수업: 3월 1일(수) 오후 7:45 - 9시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0 CYO 스키 트립

- 일시: 2월 10일(금) - 2월 12일(일) 2박 3일
- 장소: 7 Springs Ski Resort
- 등록비: \$150(lift rental), \$110(lift)
- 문의: 김다니엘 (703)795-1558

11 파티마 세계 사도직 2월 첫토요일 신심 기도회

- 일시: 2월 4일(토) 오후 6:15, 본당
- 묵주기도와 묵상, 교황님께 바치는 기도 등 45분간 함께 드리는 첫토요일 신심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김지윤 그라시아 (571)243-5054

12 발렌타인데이 꽃 판매 · 주문 배달

- 청년 단체 로고스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꽃 판매 및 배달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지민 대건안드레아 (571)315-6111

13 노숙자를 위한 물품 도네이션

- 하상관 로비에서 노숙자 Shelter 지원품을 도네이션받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도네이션 품목(어른용 새 것): 양말, 모자, 장갑, 긴소매, 내복, 찢슬, 소형 면도크림, 일회용 면도기, 입술 보호제, 핸드 워머 / 2월 24일까지
- 문의: 윤정 보일 (703)371-3589

14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혼인 갱신식을 합니다.
- 결혼 25주년, 50주년을 맞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2월 12일 10시 미사 중
- 신청 및 문의: 김 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46

15 2017 알링턴 교구 WorkCamp

- 일정: 2017년 6월 24일 - 6월 30일
- 장소: Fredericksburg, VA
- 대상: 9학년 - 12학년
- 참가비: \$475 (등록비 \$50 선납), 2월 5일까지

16 하상 주보 광고비 미납 관련 안내

주보 광고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광고주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이 지속될 경우 2주 후에는 자동으로 광고가 빠집니다. 현재 기다리는 광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능력개발(Career / Life Coaching)을 원하시는 분

- Life Coaching 이란 Mentoring과 흡사하나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돕는 방법입니다.
- 대상: 10대 - 40대 형제, 자매
- 문의: 봉사자 최동호 님 (703)623-1332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29일(일)	연중 제4주일	단체 홍보의 날, 레지오 마리에 (친교실, 하상관), 주일학교, 오케스트라 모임 (친교실)
30일(월)	연중 제4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31일(화)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 (오후 8시, 도서관) 바로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2월 1일(수)	연중 제4주간	레지오 마리에 (오전 9:30, 친교실), 평일 미사 (오전 11시) 바로로회 소공동체 모임 (오후 8시)
2일(목)	주님 봉헌 축일	아침 미사 (6:00, 성당)
3일(금)	연중 제4주간	평일 미사 (오후 7:30), 병자영성체, 화장단 회의(오후 8시)
4일(토)	연중 제4주간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에 (9:30, 친교실), 파티마 사도직 셀모임(오후 3시, B-4), 첫 토요 성모심심(오후 6:15)
2월 5일(일)	연중 제5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청소년사도회(오후 1시, B-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 2차 헌금 *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이번주(1월 29일)은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럽게 찾아온 역경으로 고통받는 극빈층 한인 가족을 돕는 워싱턴 지역 공공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 한국일보)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1월 29일 (일) 자정 12:00-1:00,
2월 2일 (목) 오후 5:00-6:00,
2월 3일 (금) 저녁 11:00-12:00

- **행복 특강:** 성 필립보 생애마를 관장 황창연 신부의 특강 시리즈/ 삶 깨닫기 (1편)
- **성화 이야기:** 서양미술사학자 노성두로부터 듣는 유명 성화 이야기.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꿈에 본 풍경)
- **다함께 성기를:** 가톨릭 이슬라스티의 주옥같은 성기를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월 22일 (연중 제3주일)

주일헌금	\$ 7,385.93
교무금	\$ 9,697.60
교무금(신용카드)	\$ 2,640.00
특별헌금	\$ 300
2차 헌금	\$ 2,569.80
합계	\$ 22,593.3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 (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조정현 (안드레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범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마사지와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맨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채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KY FARM 애플래치안 산맥에서 채취한 천종 산삼 판매 (VA 산삼 공인 딜러) Wildginsengsale.blogspot.com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수요일	07:00 AM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